

“불교 복지공동체, 주민참여 제도화가 열쇠”

김형용 동국대 교수, 조계종복지재단 20주년 심포지엄서

“스웨덴의 경우 근린협의회가 지역 사회 서비스 계획에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라면 이용자사회는 개별 기관의 예산을 결정하고 운영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건·복지영역에서 모색되고 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도 시설과 이용자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복유법의 이용자 주체 개념을 적극 차용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을 이용자가 사회가 직접 운영하게 하고, 이용자 대표는 지역사회주민협의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복지의 일부분을 이용자에게 이양하는 것이자 이용자들의 역량강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용자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기보다 수직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전문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사진)는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불교계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앞서 한동우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분과위원장이 발제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공동체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복지강국인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으로 들어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복유법의 이용자 주체 개념을 적극 차용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을 이용자가 사회가 직접 운영하게 하고, 이용자 대표는 지역사회주민협의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복지의 일부분을 이용자에게 이양하는 것이자 이용자들의 역량강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용자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기보다 수직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전문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유공자로 선정된 10인과 조계종 호계원장 지원 스님(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규범과 윤리 강화 △사찰 사회복지법인 민주성 추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현장성 강조 △지역사회 시민통제(시민평가) 개념 적용 등을 제시하면서 “불교계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연

결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5시에 봉행된 기념법회에서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과 옥수 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을 비롯한 10명이 재단 20주년 기념 유공자로, 윤학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등 18명이 2015 불교복지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주민협동스쿨’, 전국 우수프로그램

신사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평가서

3년마다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 전국 평가에서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의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은 11월 23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열린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상을 수상했다.

수상은 사회복지부 부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관이 서비스제공자라는 기존의 관점을 바꿔 지역주민 자생단체를 지원·양성하고 ‘마을지향복지관’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은 올해 △어

르신 및 결혼이주여성 모임(소셜다이나믹·밥상공동체) △주민모임(품앗이 육아·고마도반·동화나라 상담실) △마더센터 준비모임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임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주민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역 아젠다를 형성해 주민들의 주체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지완 스님은 “앞으로 복지관이 주민들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를 풍성히 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종에 걸쳐 진행됐으며, 840여개 시설 중 27개 시설 프로그램이 최우수 및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윤호섭 기자

공생회 대구지부, 성내3동 취약계층 돕는다

‘이웃사랑 쌀항아리’ 동참도

지구촌공생회 대구지부(지부장 선지)는 11월 20일 중구 성내3동주민센터(동장 민형기)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 후원 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지구촌공생회 대구지부는 성내3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5가구에 매일 5만원씩 지원하게 됐다. 더불어 대구지부는 이날 주민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이웃사랑 쌀항아리’에 동참해 쌀을 기탁하기로 했다.

대구지부장 선지 스님은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됐으면 한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형기 동장은 “주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지구촌공생회와 선지 스님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뇌졸중 평가 최우수

100점 만점에 99.8점

동국대 일산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5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심사평가원이 1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기록을 토대로 진행했으며 동국대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 중 99.80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동국대 일산병원은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서 치료대기시간을 줄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민구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질환에 대한 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며 “환자 안전에 한 걸음 더 앞서가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일산병원은 15세 미만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에서도 84.19%의 평균 항생제 처방 비율보다 낮은 53.66%로 1등급을 획득했다.

노덕현 기자

“쪽방촌에 자비의 온기 전해요”

아름다운동행, ‘아이연탄맨’ 첫 출발

기운이 영하로 내려가고 첫눈이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의 시작을 반기고 있지만 쪽방촌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겨울나기에 대한 고민으로 무겁기만 하다.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아름다운동행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1월 25일 (주)동서식품의 후원을 받아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저소득가정 9곳에 각각 연탄 200장씩 1800장을 전달했다.

동서식품 임직원 27명이 봉사자로 동참한 이번 연탄나눔은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연탄맨’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전달한 연탄 외에도 11월 말까지 저소득가정 11곳에 연탄 2200장을 추가로 지원했다. 12월에도 동서식품과 2차 연탄나눔을 통해 4000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정릉3동 5동 변진수 통장은 “정릉동에는 여전히 어려운 저소득가정이 많고 연탄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동네



11월 25일 정릉3동에서 연탄나눔봉사를 하고 있는 동서식품 임직원들.

의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언덕과 계단이 많은 산동네에 위치해 있어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아름다운동행과 동서식품의 도움 덕분에 정릉3동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캠페인으로 시작된 ‘아이연탄맨’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첫해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면서 한동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는 모금액이 소폭 상승했지만 사회적으로는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겨울, 총 3만장의 연탄을 소외이웃에게 지원하겠다는 아름다운동행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 02)737-9595

윤호섭 기자

남성 독거어르신들 “삶의 질 높아졌어요!”

은평노인福, 자립심 향상 프로그램 수료식

사회 고령화에 따라 독거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고립감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복지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재)은 11월 25일 경기도 이천에서 ‘남성 독거어르신의 일상 Up-grade 활기찬 삶! 멀리 있지 않아요’ 수료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총 48회(전·후반기 24회씩)에 걸쳐 남성 독거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식품구입법·조리법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수납·청소도구 사용법 △판계단질 예방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인문학 교육 △정서적 지지 및 자조모임을 위한 캠프 등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많이 적적했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많은 친구들이 생겨 즐겁고, 혼자 생활하는 데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긍정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제7회 원효학술상(元曉學術賞)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철학, 한국 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영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해 한국 철학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효학술상을 공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및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읽어 참조 바람.]

- **공모 주제**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 (+ 상기 전제하에 다음 각 부문 중 자유선택·1인 1편 응모)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영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 **대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초·중·고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 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박사 과정 학생 3인 이내 : 공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2) 저서 2부, 논문(발행본) 3부
 - ① 학생 논문은 경우 교수(초·중·고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 ② 심사 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 (저서는 ISBN 등록본).
 - 3)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 1) 접수 기간 : 2016년 1월 4일(월) ~ 2016년 2월 29일(월)까지
 -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 3) 접수처 : 주소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대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719-2606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kbpf@chol.com).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16년 4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 2) 시상식 : 2016년 4월 말 또는 5월 초(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www.kbpf.org 문의 : 02-719-2606